

디아스포라의 불온한 주체성

—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

박 선 양(군산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주체적 횡단 |
| 2. 불안한 외국인 | 5. 결론 |
| 3. 불온한 이방인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디아스포라의 현재적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생』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불온한 주체성을 살폈다. 외국인 학생, 창은 한국전쟁에서 실존의 불안을 겪고 탈향하지만 사회·문화적 조건을 넘어서는 주체화를 수행하지 못하여 반복적 상황에 놓인다.

디아스포라로서 주체가 되려면 먼저 몸이 간직한 모국의 기억을 발설함으로써 부재했던 자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조건부 환대를 넘는 우정을 맺고 경계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창은 캐더린과 우정을 나누며 차이를 인정받고 환대의 철회에 동의하는 소극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경계에서 이방인으로서 자유를 느끼며, 불온한 응전으로 저항하는 존재가 되어 자신만의 장소화에 성공한다.

『외국인 학생』에서 작가는 아버지의 전쟁이산 이유를 제시하고 디아스포라로서 주체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의 혼종성이 수행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서사적 정체성 역시 주체적 횡단 중이다. 이 수행은 한민족 문학이 갖는 보편성과 고유성의 접점에 기입되어 현재적 의의를 지닐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이방인, 주체화, 불온, 횡단, 외국인 학생, 수잔 최

1. 서론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는 한민족¹⁾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디아스포라 논의가 활발하다. 국문학에서 재외한인의 디아스포라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한민족의 확장된 정체성 탐색과 더불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민족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찾으려는 데 있다. 보편적 문학성을 담보하는 방증의 하나는 디아스포라 작가가 정주국에서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수잔 최²⁾는 아시안-아메리칸 문학상, 반즈 앤 노블 신진작가상을 수상하고 풀리처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등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는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³⁾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목에서 경계가 시사될 뿐 아니라 ‘학생’이 담고 있는 의미 변화가 디아스포라로서 주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잔 최는, 이 작품이 전적으로 픽션이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출발점이었으며 자신의 인종적 뿌리를 찾는 기록이었다고 말하

1) 현재 740만 명의 동포가 세계 170개 국에 나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네 번째다. 중국 4500만 명, 인도 2500만 명, 이스라엘 유대인이 800만 명이다.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2019. 5.10. 검색)

2) 수잔 최는 1969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어머니와 한국인 이민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990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다시 코넬대학의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3) 『외국인 학생』은 1998년 미국에서 영어로 발표되어 「LA타임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소설 베스트 10’과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외국인 학생』은 작가의 첫 장편소설로 1999년 최인자의 번역으로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번역본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었다⁴⁾. 그러므로 『외국인 학생』은 한민족 1세대의 경험 서사이면서 2세대의 가치관이 기입된 혼종성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는 10여 편 정도이다. 2000년 초, 류선모⁵⁾와 이일환⁶⁾은 재미 한국계 작가들을 한데 묶어 작품을 개관하며 『외국인 학생』에 미국적 시각이 우선시됐다고 보았다. 2005년 장사선⁷⁾ 역시 작가가 미국인 의식을 가지고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형상화했다고 분석하였다. 2006년 나은지⁸⁾는 민족적/문화적 타자들이 연대하여 초민족적/다문화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나은지는 2008년에 고부웅⁹⁾과 함께 한 연구에서 초민족적/다문화주의적 공동체가 제3의 공간에서 주류의 담론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소수자 정치의 가능성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2007년 정은경¹⁰⁾과 2009년 류보선¹¹⁾은 타자 간 사랑에 방점을 찍었다.

4) 1999년 인터뷰에서 수잔 최는 「외국인 학생」 집필동기에 대해 “하나의 개인으로서 한국인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었다”며 “아버지의 회고와 관련 책들을 통해 자료를 조사한 뒤 작품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작품이 자신의 인종적 뿌리를 찾는 기록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회고를 기초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연합뉴스, 1999. 7.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4406252>. 2019. 5. 10. 검색)

2014년에는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매순간 기억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쓸 때 항상 한국과 내 가족의 역사와 연결된 주제가 나온다.”라고 답하였다.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 인터뷰(문화일보, 2014. 9.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24010736301090020>, 2019. 5. 10. 검색)

5) 류선모, 『미국소수민족문학연구』, 신아사, 2001.

6) 이일환, 「재미한국계작가연구(2)」, 『어문학논총』 22, 어문학연구소, 2003, 259~270면.

7) 장사선, 「재미한인소설에 나타난 폭거와 응전」, 『한국현대학연구』 18, 한국현대문학회, 2005, 481~509면.

8) 나은지, 「수잔 최(Susan Choi)의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의 두 주인공의 정체성 모색과정 연구: 연대를 통한 초민족적/다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6.

9) 고부웅, 나은지,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과 초민족적 공간」, 『미국소설』 15권1호, 미국소설학회, 2008, 29~50면.

2011년 김종희의 연구는 다시 민족 담론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과 사랑의 교직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찾았다고 보았다. 2013년 황은덕¹²⁾은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창이 실용적 생존에 그치며 불안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6년 허운¹³⁾은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번역 측면에서 재미한인 작가들이 혼종성¹⁴⁾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혼종성 외의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고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다¹⁵⁾.

선행 연구들은 『외국인 학생』에서 디아스포라의 보편성을 찾으면서 한민족의 확장된 정체성과 한민족의 기억 생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
- 10) 정은경, 「식민지 지식인 후예의 사랑」, 『디아스포라문학』, 이룸, 2007.
- 11) 류보선, 「다언어공동체와 연인들의 공동체」, 『현대소설연구』 4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29~157면.
- 12) 황은덕, 「디아스포라와 문화번역: 수잔 최의 외국인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20권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151~174면.
- 13) 허운, 「한국의 번역과 한국계 문학에 대한 시론-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6, 89~111면.
- 14) 혼종성 자체가 두 문화를 전제하여 성립되므로 두 문화의 경계에서 주체적 문화를 생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 15) 미국 내 연구와 리뷰 아마존에 올라있는 리뷰는 총 21편으로 긍정적 의견 15편과 비평적(critical) 의견 6편이 있다. 비평적 의견에는 읽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서사 외 전쟁 기록물 같은 표현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의 주 관점은 한국전쟁의 기억공간, 미국 제국주의가 문명화로 억압한 한국전쟁에 대한 고발이다. 미국 내에서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며 작가의 의도인, 한국전쟁 알리기라는 목적이 수행된 셈이다. 또한 창과 캐더린의 연대라는 주제도 나타난다. 전쟁에 맞선 사랑이라는 주제로 읽는 관점으로 탈향과 월경의 연대로 국외자들의 소통을 문제 해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https://www.amazon.com/Foreign-Student-Novel-Susan-Choi/dp/0060929278/ref=sr_1_6?keywords=susan+choi&qid=1551868686&s=books&sr=1-6, 2019. 5. 10. 검색)
- 번역자 최인자의 해설도 이에 속한다. Choi, Susan, *The foreign student*, 최인자, 『외국인 학생』 하, 문학세계사, 1999. 277~287면.
- 연구자는 201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외국인 학생』을 한국전을 소재로 한 한민족 체험의 기억서사로 묶어 거대 담론의 배후에서 위협받는 개인의 기억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선양, 「재미한인소설연구-1.5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4.

기존 논의들은 디아스포라를 주체에 대한 반주체로 보거나 두 문화에 대한 번역자로 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주체이기보다 외부에 필연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의의를 반영하면서 『외국인 학생』이 디아스포라 주체의 서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1세대 경험과 2세대의 정체성 고민이 혼종된 『외국인 학생』에서 디아스포라가 주체로서 변화해 가는 과정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전을 겪은 이산자가 1950년대 미국에서의 삶을 접합하는 모습은 한민족의 산포된 정체성이기도 하다.

현대의 정체성¹⁶⁾은 서사적으로 나타난다. 파편화된 경험이나 현상은 서사적 형태를 취할 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합된 형태로 규정하는 정체성도 서사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또한 서사적이라는 의미는 개방적이며 통합적이다. 서사에서 새로운 읽기를 통해 거듭 형성되는 주체의식, 인과적 구성을 지향하며 시간적 진행을 반영하는 특성과 같은 것이다. 서사적 정체성은 경험에 통일성을 부여하지만 고정되지 않고 현실과 맞닿아 늘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디아스포라는 두 문화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응전한다. 어떤 응전의 모습으로 자신만의 장소를 만드는지 살피는 것은 실제 이주자들의 일상과 맞물려 그들이 형성하는 연결망과 문화의 양상을 초점으로 하는 최근의 디아스포라 연구와도 닿아 있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무엇’인지보다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묻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유연한 의미의 디아스포라 개념은 행동양식, 관계망,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폭을 드러내면서 이주가 창출한 세계의 특수한 국면을 조명하는 것”¹⁷⁾이기 때문이다.

16) 서사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아래 두 논문을 참고함.

김유석, 이승하,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집 29호, 인문과학연구소, 2011, 29~49면.

김정현, 「배제의 정체성을 넘어서; 열린 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모색으로서 서사적 정체성 연구」, 『철학논총』 61집3권, 새한철학회, 2010, 225~257면.

17) Kenny, Kevin, *Diaspora*, 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엘피, 2016, 26~32면.

디아스포라가 가는 길은 기존의 논리적 노정(路程)이 아니다. 횡단에서의 상황과 만남은 많은 경우 도전이 되는데 그 응전은 일반적 논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 보편적이지 않은 도전과 응전에는 디아스포라 자신만의 인과적 구성이 필요한데 이때 디아스포라의 서사적 정체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주체가 되었을 때야 진정한 횡단이 가능해진다.

디아스포라의 주체성을 살피기 위해 이 연구는 불온이라는 개념¹⁸⁾을 활용하려고 한다. 우리 역사에서 ‘불온’은 피식민자의 저항 스펙트럼을 확대하거나 잠재성으로서의 저항을 읽어내려는 시도로 쓴 개념이다. 권력의 시각이 담긴 불온이나 불온 사건, 불온한 행위를 행위자의 능동적인 표현 또는 의지가 담긴 불온으로 재구축하여 행위자의 능동성을 읽어내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¹⁹⁾.

‘불온’은 통치언어와 비평언어로 쓰일 때 각기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다르다²⁰⁾. 통치언어에서는 권력의 통치 기술이자 관제 공포이지만 비평언어로서 ‘불온’은 권력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거나 거스르는

18) 역사적으로 개념은 한 시대를 인식하는 매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재)구성과 역사의 변화에 관여하는 주된 요소이다. 황정아, 『개념비평의 인문학』, 창비, 2015, 6~7면.

19) 정병욱 외, 「‘불온’한 자들의 삶,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저작 비평-정병욱 저, 식민지 불온열전」, 『역사비평사』, 역사문제연구 제31호, 2013, 211~217면.

20) 한국에서 ‘불온’은 192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민지일 때 불온은 민족과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하였고 해방 후 분단을 경험한 국민국가에서의 불온은 북한이 무한한 기원으로 작용하였다. 후자의 불온은 대내적 안전을 배경으로 ‘불온’을 규정하기 때문에 불온이 안전과 행복의 대립쌍으로 기능한다. 역으로 그 과정에서 불온의 주체가 (재)구성된다. 불온은 지시한 대상이나 주체를 귀속-없음으로 만들어 표류하게 하고 이는 경계에 대한 앎을 제공한다. 그 앎이 주체화를 촉발하고 대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유경은 ‘불온’이라는 개념의 역사성을 이해한 연구자가 적극적인 재해석을 통해 불온을 발생시키는 타자 구별의 경계를 점검하고 경계 위에서 경계를 사유할 수 있다고 본다.

임유경,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제15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5, 189~228면.

임유경, 「방법으로서의 ‘불온’」, 한국현대문화학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화학회, 2015, 1~21면.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4.

의지를 표출한 주체들의 역사를 보여준다. 억압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주체화의 경험을 촉발하는데 그 대항의 장소가 문학이기 때문이다. 즉 비평언어로써 ‘불온’은 피식민적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서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위협’과 ‘낙인’의 의미를 ‘대항’과 ‘저항’으로 전유하면서 보이지 않던 대상에서 보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불온’이 ‘자기를 지시하는 언어’가 되면 변화와 혁신의 자원이 된다. 불온은 자기 주체적이며 확산적이어서 기존의 가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은 디아스포라의 경우 불온으로써 실천적 결과를 얻으면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사로 묶는 것을 해체하면서 각 사회문화적 조건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²¹⁾. 경계를 횡단하는 디아스포라의 불온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불온이라는 관점으로 『외국인 학생』을 읽을 때 디아스포라의 주체성뿐 아니라, 한민족 개인의 관점에서 한국전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전쟁 후 남북한은 모두 반공주의와 조국해방이라는 정치적 지배질서와 사회의 기본논리로 한국전을 재생산²²⁾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시간 배경인 1955년과 작품이 생산된 1998년의 시간차²³⁾가 개입하여 남북한과 다른 사적 기억을 생산한다. 따라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외국인 학생』은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과 한민족 역사의 기록적 서사라는 의의를 가지게 된다.

21) 최진석, 문화, 정정훈, 이진경, 손기태, 『불온한 인문학』, 휴머니스트, 83~84면.

2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6, 399면.

23) 이 연구의 논점은 아니지만 『외국인 학생』에 나타난 한국전은, 민족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기억을 생산하며 미국에도 전쟁수행과정을 보여주고 원조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에 대한 이런 관점의 연구가 2000년이 되어서야 김동춘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6.

2. 불안한 외국인

인간은 자신이 놓인 사회·문화적 조건에 환멸을 느끼거나 그에 의해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럴 경우 주체적 존재를 꿈꾸는 인간은 그곳에서의 이탈을 꾀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쟁이 그러하다. 『외국인 학생』의 창도 한국전쟁을 겪으며 북한과 남한, 미국의 세 나라에 의해 생존 위협을 받는다.

창은 살아있는 동안 두 번 다시 북면에 가보지 못했다. 그곳에 두고 온 선조들의 땅도 보지 못했다. 그 시골집은 아마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기억만은 단단한 공처럼 그의 마음속에 굳게 봉인되어 있었다. 그 나무들과 사당을 향해 오르던 언덕길, **넓적다리에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던 바로 그 순간, 상처에서 흘러나와 살갗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붉은 피, 그리고 점점 뜨겁고 빨라지던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다.²⁴⁾...이 모든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걸어갈 때 느꼈던 몸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다른 모든 기억들이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갈 때, 그 기억만은 날이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커져갔다. 그리고 마치 상처 위로 돌아나는 새살처럼 스스로를 지우면서 그의 일부로 변해갔다.(『외국인 학생』 하, 261면)

연구자가 인용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던 순간이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자아의 원천이 창에게는 북면의 집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창은 북한 때문에 북면 집에 갈 수 없고 연합군은 그 집을 폭파하는데 창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래서 창은 몸이 북면 집을 대신하는 기억의 공간이 되었다. 이후 창은 자신에게서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세 번이나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미국인 상사의 배신으로 북한군의 가택점령 때 숨어 있다가 대

24) 본문 인용에서 내용의 중략은 ‘...’으로 표시하였다.

장의 운동이 멈추고 배설할 수분조차 남지 않게 되어 몸을 거의 잃게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삼촌의 배신 때문에 제주로 흘러들어가 꿈에서조차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던 상황이다. 세 번째는 남한군의 고문 때문이다. 자신이 토한 녹물과 위액까지 खा아먹고 밤새 지린 물똥을 맨손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서 창은 “쇠파이프의 날카로운 모서리 끝으로 오른 손에 깊은 상처를 내서 날짜가 가는 것을 표시한다. 그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날짜를 헤아리면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로²⁵⁾” 한다.

하지만 전쟁은 철저히 비인간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의식과 무의식조차 구별되지 않는다. 몸이 견뎌낼수록 고문이 심해지므로 감각을 잊어야하는데 몸을 잊거나 잃으면 의식과 기억이 사라진다. 기억이 사라지면 자백을 할 수 없으므로 몸에 대한 고문은 배가 된다. 기억을 해내야 자백하고 몸을 살릴 수 있는데 몸을 살리면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 부조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창은 몸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한다.

창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되살려 자백하게 되는 이유는 몸에 대한 고문이 몸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혀를 칼로 베어 상처를 낸 다음 소금물을 끼얹은 고문은 제주에서 부랑자로 떠돌 때 사회주의 유민들을 돕던 토다로 신부가 시켜준 목욕에서 느낀 몸의 감각을 환기시켰다. 무의식중에 신부의 이름을 발설한 창은 풀려나지만 자백 후 창은 죄책감에 시달려 몸을 잊고자 한다. 전쟁 때문에 자아의 원천을 잃고 이를 간직한 기억 공간까지 훼손된 것이다.

창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통에 대한 기억은 온통 암흑에 휩싸여 있었다. 어찌면 또 다른 세상의 일이었는지 모른다. 아니 어찌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창은 그 또 다른 육체가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또 다른 남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가? 자기 안에 여전히 또 다른 낯선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서.(『외

25) Choi, Susan, 앞의 책, 하 246면.

창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자 오로지 생존논리만 따르기로 한다²⁶⁾. 전쟁 후 한국에 남은 사람들은 남이든지, 북이든지 배제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데 어느 곳도 택할 수 없었던 창은 탈향을 결심하는 것이다. 창 의 탈향은 생존논리를 넘어 실존²⁷⁾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시 권력의 질서에 소속되어 권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이 이전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면 남한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창은 한국에 남은 이들과 분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미국의 남부 스웨니에 도착한 후에도 불안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억의 공간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밤마다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이다. 기억은 지나간 과거의 끊임없는 재현으로 창 의 무의식은 아직 과거에 갇혀 있는 셈이다. 창은 꿈에 대하여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국에서와 같이 몸을 잊으려 노력한다. 스스로에게 설명 가능한 삶을 살아야 실존할 수 있는데 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더욱이 창은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창은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미국의 1955년은 아시안 이민이 허용된 매캐런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한 시기였다. 창은 자신을 무화시켰던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이자 ‘학생’이라는 특정 표지를 받아들인다. 이를 위해 모국을 동화적으로 번역²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6) 전쟁이 발생하면 인간은 도구이자 자원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자 권리가 된다. 김동춘, 앞의 책, 392면.

27) 타자의 그것과 교환할 수 없는 각자의 자기, 타자가 아니라 바로 각자의 자기의 내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수행한다. 이것이 실존의 행위이다. 가야노 요시오(茅野良男), 현상학사전(노에 게이이치 외 4인), 도서출판 b, 20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7695&cid=41908&categoryId=41972>, 2019. 2. 10. 검색)

창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창이 한국에서 언론 번역과 군부 통역을 할 때 영어는 창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 기사를 선택하여 가감하며 원재료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스웨니에서의 영어는 난민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²⁹⁾로 작용한다. 지도교수의 지나친 발음교정은 창의 언어능력을 후퇴하게 하는 것이다. 첫날 ‘창’의 이름을 마음대로 ‘척’이라 바꿨던 미국기자 피터필드보다 교수는 더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인다. 피터필드는 제국주의적 호명에 그쳤지만 교수는 창이 소통수단을 잃게 하였기 때문이다.

창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되는 것과 같다. 언어의 사용은 비준 받은 규범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체계의 전달이기 때문이다³⁰⁾. 그러므로 창은 다시 모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종속되는 반복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곳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는 익명에 불과하다. 창은 ‘몸으로 이동한 기억의 공간을 부인하면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난민³¹⁾’이 된 셈이다.

창은 한국전쟁 당시 도피할 때 미국정부의 공식마크나 인증이 찍힌 것들과 피터필드의 영문타자기 등을 훔쳐 나왔다. 하지만 남한군을 만났을 때조차 그 물건들은 창을 위협에 빠뜨렸다. 창은 커피와 초콜릿 뒤의 날카로운 시선을 읽어내며 미국의 모든 것이 장애물이라고 느낀다. 창에게 미국적인

28) 문화번역은 자신의 문화를 현재 속한 공동체의 지배언어로 바꾸는 동화, 자신의 문화적 기원을 유지하는 적응으로 나뉜다. 마이클 크로닌, 김용규, 황혜령 역, 『번역과 정체성』, 동인, 2010, 114면.

29) 백인성 신화의 첫 번째 작동원리는 영어이다. 개인의 영어구사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공용어가 아니라 미국에 편입되기 위한 관문이다. 그런데 영어는 백인, 좁게는 앵글로 색슨이라는 특정 인종의 언어로 전용되기 때문에 유색인 이민자들이 영어를 아무리 완벽히 구사하더라도 진정한 원어민, 즉 미국인의 정체성을 주장하기는 힘들다. 영어라는 기표는 미국인 신화의 작동 원리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하나의 지배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박선양, 앞의 책, 118~119면.

30) 문아영, 「기호체제들과 미시권력」,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서울사회과학연구회 편), 푸른숲, 1997, 298~315면.

31) 황정아, 앞의 책, 23면.

것은 실존의 조건이 아니라는 시사이다.

불안³²⁾은 앞으로 도래할 부정적인 것에 대한 예견이나 완료되지 않은 과거의 재활성화 때문에 발생한다. 전쟁은 대상이 있는 공포이다. 그런데 공포가 중첩되면 대상이 없는 두려움, 즉 불안의 상태가 된다. 창은 모국에서 불안을 겪고 이 때문에 탈항하지만 억압된 기억과 자신에 대한 무규정성으로 다시 불안에 빠진다. 무규정성은 인간이 ‘나는 ~이다’로 규정되지 못하고 ‘무엇’과 ‘이다’의 결렬에 놓이는 것이다. ‘외국인’이자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은 창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무규정성은 ‘자유’를 내포한다. 무규정성이 내포한 ‘자유’를 수행하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을 때 불안은 불온으로 확장된다. 창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을 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이 주체가 되려면 자신의 역사적 시간인 전쟁 기억을 이야기하고 내면의 욕망을 현재적 시간에서 수행해야 한다. 역사적 시간성과 현재적 시간성이 다른 이방인은 두 시간성 모두를 수행할 때 자신이 거할 사이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온한 이방인

창은 동양을 추상하는 보편자로서, 그들이 붙인 호칭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조건부 환대³³⁾의 대상이다. 즉 계약 안에 있다. 진정한 환대는 환대의 ‘법’과 ‘계약’에서 단절되

32) 맹정현, 「불안과 불안의 운명」, 『문학과 사회』 22집, 문학과 지성사, 2009, 410~427면.
33) 칸트의 보편적 환대가 곧 조건부 환대이다. 거주는 안 되지만 국적이 있는 자일 경우 방문은 가능한 것, 무엇보다도 애초 전쟁 상태이지만 단지 평화를 추구할 뿐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환대는 계약 안에 있다고 본다. 김은주, 「테러와 공동체 없는 정치: 갈등과 고독을 보존하는 우애와 환대의 윤리」, 『철학연구』 122, 철학연구회, 2018, 272~273면.

는 것을 지시한다³⁴⁾. 그러므로 무규정이 내포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창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³⁵⁾과 함께 현재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피는 행위으로써 그 환대를 벗어나야 한다.

환대에 대해 회의하고 그들의 규정을 거부하면 잠재태의 저항이더라도 정해진 가치를 분산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가치체계에 불편하고 낯섬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재)구성과 역사변화에 관여할 수 있다. 요컨대 불온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행위자의 능동적 표현 의지와 저항인 것이다. 이를 수행해야만 창은 탈향한 ‘외국인’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창의 경우, 내면의 욕망 수행을 통해 현재에 대한 회의와 전쟁 기억을 이야기하게 되는 일이 맞물려 일어난다. 방학 중 일을 하러간 시카고에서 창은 제본을 파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슬럼가에 우뚝 선 숙소에서는 모국에서 경험했던 폭탄 터지는 진동을 느낀다. 시카고는 학자로서 창의 꿈을 훼손하고 생명 위협의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인 것이다. 조건부 환대조차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창이 수행한 능동적 첫 행위는 리틀 도쿄로 거주지를 이동한 일이다.

그곳에서 창은 아무 조건 없이 이웃으로 인정받는다. 늘 책을 읽거나 수확문제를 풀고 있는 창을, 보이는 그대로 ‘학자’라고 불러주는 곳이다. 창의 능동적 첫 행위가 자유로운 이동이며 그곳에서 학자로 규정되는 것은 리틀 도쿄의 장소성을 보여준다. 리틀도쿄에서 진정한 환대를 맞은 창이 캐더린의 본가 주소를 알게 됐기 때문에 마음 깊이 간직하고 부정하던 욕망을 적극적으로

34) 권수경은 테리다를 빌어, 환대는 타자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오히려 타자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환대라면 환대의 ‘범’과 ‘계약’과 단절하기를 지시한다고 하였다. 권수경, 「환대와 글쓰기 - 레비나스, 테리다, 자베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53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5, 78~82면.

35) 하이데거를 빌린 고병권의 논의, 고병권, 「투시주의와 차이의 정치: 불합과 승인을 가로지르는 생성의 정치로」,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서울사회과학연구회 편), 푸른숲, 1997, 229~230면 참조.

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제본소의 책 사이에서 발견된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창은 70시간이 걸리는 뉴올리언즈로 떠난다. 시카고를 떠나는 정류장에서 미지의 여행자와 미소로서 말없이 서로 배웅하는 장면은 창외 여행이 성공적일 것임을 보여준다. 버스에서 만난 소년이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창이 역사적 시간을 간직한 현재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창이 “마음 속 깊은 곳의 충동을 믿고 따르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망설임을 희생하여 마치 새로운 발견을 통해 다시 태어나려는 탐험가처럼³⁶⁾” 떠났기 때문이다.

창은 남부 대도시인 뉴올리언즈에 내리자마자 중국인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억류되지만 연락을 받은 캐더린이 ‘자신과 오랫동안 사귀 친구’라며 신분을 보증한다. 창은 욕망을 수행한 결과로 캐더린의 우정을 확인하고 악몽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계기를 맞는다. 창이 스위스에서 악몽을 꾸었을 때 달려온 캐더린에게 가버리라고 소리쳤던 일, 자신의 약혼을 말리기를 원하는 캐더린에게 고개를 흔들던 창을 생각하면 창외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꿈이에요. 나는 그곳에 있는 꿈을 꾸곤 해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대개는 그저 달려가고 있어요.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나는 계속해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죠.”

창은 천천히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한 발의 충성이 들려오죠.”

“그때 잠에서 깨어나는군요.”

“아니요.”

“충알이 내 몸에 와서 박히는 것을 느껴요.”

36) Choi, Susan, 앞의 책, 하 189면.

캐더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창은 갑자기 어둠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미소였다.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어요.”(『외국인 학생』 하, 213~214면)

망각하려던 기억은 주체의 현재 정서이기도 하다. 창은 자아를 무너뜨린 전쟁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창은 악몽을 발설함으로써 억압된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몸은 총을 맞은 적이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깨달으며 창은 내면에서 자아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파열을 일으키지 않는 내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창은 언제나 자기 안에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고향이 머무르고 있는 넓은 공간과 그의 몸이 내부에서 파열을 일으킬 때 한없이 작아지는 공간이었다. 지나치게 넘쳐나는 기억의 세계와 완전한 부재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 그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씩 그 어려움을 헤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짧고 간단해졌다. 언젠가는 그의 기억이 고통을 감싸 안고 그의 몸이 상처를 감싸 안듯이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을 감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줄어들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외국인 학생』 하, 272면)

창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몸에 꼭 맞는 지하 방에서 스스로를 끌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창은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 나온 것이다. 캐더린은 둘이 함께할 상상의 공간에 대해 들려준다. 그 공간에서는 물총새가 갈대숲 속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창은 물총새가 자신 같은 학자(學者)새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든다. 창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악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든 것은 처음이다. 창이 전쟁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이다. 넘쳐나던 과거의 기억 공간이 줄어들며 창이 내면적 공간에는 현재의 자신이 들어설 자리가 확보된다.

들뢰즈에 의하면 주체화³⁷⁾는 자기동일성, 자발성, 확실성을 갖는 근대적 의미의 주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하는 주체가 비선형적 시간성 안에 기입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는 역사적 시간과 현재적 시간의 비선형적 시간에 놓여있다. 이 시간은 자기동일성을 벗어나 있어 행위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이는 자아에게 아주 벽찬 행위로서 그 수행은 신체가 의식을 벗어나 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이 억눌렀던 욕망을 현재적 시간에 수행하고 역사적 시간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로서 주체화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캐더린은 첫 만남에서 ‘척’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본래 이름을 불러주었다. 영어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스웨니에 익숙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창을 존중하였다. 창 역시 캐더린에 대한 무성한 소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더린은 창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에게 편견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고백한다. 이는 창을 중심에 둔 생각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캐더린의 우정은 외국인에게 보내는 조건부 환대가 아니다. 스웨니 사람들은 창이 자신들이 최고라는 확신을 줄 때 관용과 은혜를 베풀었다. 학장은 창이 그곳의 규칙을 잘 지키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랐다. ‘외국인’은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안을 더욱 공고히 한다. 하지만 ‘이방인’은 안과 밖 둘 다에 속하지 않고 경계에서 각 공간의 가치와 문화를 균열시킨다³⁸⁾.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는 조건은 그곳의 사회문화적 틀에 갇히지 않는 것,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생성하는 것, 더 나아가 불온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리와 역사를

37) 신지영, 「들뢰즈에게 주체화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8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6, 467~491면, 참고.

38) 박선양, 앞의 책, 109면, 각주 247번.

가질 수 있다.

창에게 불온의 기미는 불안의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창은 장학금이 아주 일시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끼어 든 필요조건이라 생각하였다. 숙소에 장기간 혼자 남게 됐을 때는 건물 전체를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하며 kkk단의 아들 크레인의 실내화를 신고 다른 방을 마음대로 드나들기도 하였다. 캐더린과 남부 대도시의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자신도 그들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계의 눈초리를 장애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방어자라고 여겼다. 그 결과 식사 후에는 종업원이 처음과 다르게 백인남자에게 하듯 창에게 차 열쇠를 건넨다.

창은 환대를 철회 당하는 과정에서 불온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외국인에 대한 환대의 철회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그곳에서의 삶 외에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폭력이다. 창이 환대받는 외국인으로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받게 되는 벌은 그래서 폭력이 된다³⁹⁾.

날것의 폭력과 의례로서의 폭력은 다르다. 전쟁 중의 폭력은 날것으로서 창을 철저히 물화하였다. 이에 반해 “의례로서의 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행위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때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⁴⁰⁾기 때문이다. 창은 조건부 환대의 철회에 동의하며 의례의 암묵적인 구성원이 된다. 이는 창에 대답에 안도하는 학장의 답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결국 바꾸어는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창을 제명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식당에서 일을 해서, 훔친 돈과 제본소에 끼친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것과 스트레이크 하우스에서 당장 퇴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재입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입학허가

3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69~72면.

40) 위의 책, 58~129면

를 받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위는 영원히 포기해야만 한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이 순순히 대답하자 바우어 학장은 큰소리로 함성을 질렀다.

“정말 장하군! 덕분에 나는 한 시름 덜었네.”(『외국인 학생』 하, 270)

창은 학장의 벌에 동의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의 의례에 참여하며 주체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런데 학위를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새’로 자신을 의식화하는 창에게 모욕이다. 창이 받은 모욕적 처벌은 스웨니가 전근대적이라는 표지가 된다. “모욕이 의례적 질서의 일부일 때, 즉 의례 코드 자체가 비대칭성을 띠 때 그 사회는 전근대적 차별이 존재하는 장소⁴¹⁾”가 되기 때문이다.

주체로서의 사람은 모욕당하면 저항한다. “주체의 저항은 의무이자 조건이다. 공적 공간과 거기에서 격리되어 존중이 사라지는 공간의 경계에 있는, 불완전한 성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⁴²⁾.” 창이 학위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하면서도 이후 즐겁게 자신만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스웨니의 전근대적 모욕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이 모습이 스웨니의 불편한 배경이 될 때 창은 이방인으로서 명예로운 주체가 된다.

창이 가깝게 지낸 스웨니의 학생들은 ‘가문 좋고 세속적인 남부의 젊은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창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외국인일 때 환대를 보였다. 하지만 창이 그들보다 수학에 우수성을 보이자 환대를 거둔다. 반대로 창에게는 수학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제명 이후에 창이 스웨니에서 불온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수학공부의 즐거움 덕이었다.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창이 스웨니의 동일한 공간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환대에 기대는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부를 즐기는 학생으로 자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41) 위의 책, 130~131면.

42) 위의 책, 126~127면.

하루 일이 끝나는 저녁 8시에도 여전히 여름의 태양은 저물지 않고 나무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창은 얼굴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았다. 가끔씩 이런 순간이 있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순간이 있었다.(『외국인 학생』 하, 274면)

이 힘은 무조건적 환대를 받았던 리틀도쿄에서 생겨났다. 그곳에서는 그가 앉아있는 곳이면 어디든 도서관이 되었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학자가 되었다. 존재 자체로 자기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창은 100달러 때문에 도둑이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순수한 욕망을 수행하였다. 창이 캐더린의 주소를 알게 된 날은 미국에서 처음 맞이한 독립기념일이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창이 욕망 수행의 계기가 같다는 것은 앞으로 그곳에서 창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이 탐험적 행동은 조건부로 주어졌던 외국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독립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환대받는 외국인일 때는 창 역시 백인들과 같은 의례를 지켜야 했다. 스웨니에 도착한 초기에 창은 무심히 흑인종업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다 백인학생들에게 제지당하였다. 백인들과 함께하는 창이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흑인 종업원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랬던 창이 자신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불편하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창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환대도 우정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창이 흑인의 일을 하는 모습은 스웨니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불쾌함을 준다. 어제까지 의례를 받아들이며 환대받던 창이 현재 모습은 그들에게 낯설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창은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 사람들의 사유 형식은 사회에서 주어지므로 내부에 존재하는 사유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낯선 것, 해명하기 힘든 기이함과 조우 등 이질적 외부와 마주할 때 발생하는 당혹스러운 사유는 외부적 폭력이 된다. 이는 외부에서 강제되는 수동적인 것이기도 하다⁴³⁾. 따라서 창은 능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사유를 하도록 강제하는 불온한 이

43) 장정훈, 「불온한 인문학은 사유의 정치다」, 앞의 책, 108~114면.

방인이다.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저항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존 가치를 대표하는 영어교수 애디슨은 약혼녀 캐더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런데 캐더린이 창을 선택할 것을 예견하고 받아들인다. 제본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창이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는 학장을 설득하기도 한다. 애디슨이 흑인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그들 쪽을 향한 것에 불과하며 친절이 과장되어 눈에 띈다. 하지만 창에게는 눈을 쳐다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다. 더 이상 환대받지 못하는 창이지만 애디슨만은 보이는 존재로 인정하는 셈이다. 창 역시 흑인들은 하지 못하는 답례인사를 건넨다. 창은 자신이 어떤 경계들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약하지만 창이 그들의 기존 가치를 분산시키며 나름의 실천적 결과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이 머물던 숙소, 스트레이크 하우스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크레인 등이 노크 없이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퇴실은 오히려 창이 자기만의 공간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체라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몸은 자아의 마지막 영토이자 개인이 행사하는 주권의 원천이다⁴⁴⁾. 따라서 불안을 넘어 불온한 존재가 된 창은 새로운 자아의 공간이 된다. 모국의 전쟁 기억을 이야기하며 확보한 내면의 공간이 실존의 장소이자 저항의 장소가 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모국에서 창은 행동가가 아니라 사상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창은 아무 생각 없이 탐험가로서 행동한다. 창이 가진 가장 미국적인 재능은 짐을 싸는 능력이며 정류장은 그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허약함, 질병이 모두 사라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창은 백인과 흑인, 두 계층 바깥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오히려 경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공부를 하면서 스웨니에 머무는 창은 자신이 부당하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벌에 동의하며 의례의 주체가 되었고, 명예롭게 모욕에 저항하며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44) 위의 책, 203면.

4. 주체적 횡단

국가적 동일성을 깨는 불온의 존재로 경계에 머무는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변환을 포함한다. 창이 ‘외국인 학생’으로 불릴 때는 동일성 서사에 복무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존형 문화오역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은 창이 국가와 개인을 묶는 동일성 서사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이다. 남부의 보수적 가정을 상징하는 캐더린의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를 용인하는 것과 리틀도쿄에서 소수민족들이 연대하는 것 또한 동일성 서사에서 벗어난 만남들이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창이 새로운 앞날을 계획하는 욕망은 서사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사적 정체성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주체가 변화하며 정체성을 형성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가운데 항존하는 그 어떤 것이 정체성 형성에 작용한다”⁴⁵⁾. 그것이 창에게는 경계 넘기이다. 창은 모국에서 생존을 위협당하는 비논리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탈항을 결행하였다. 이후 반복적 불안 상태에 놓였지만 새로운 만남들을 자신 안에서 종합하여 주체로서 욕망을 수행하는 횡단을 하였다.

창과 캐더린은 휴게소나 터미널처럼 이동하다 들르는 장소를 좋아한다. 둘의 공통점은 창의 정체성 형성에서 항존적 요소인 경계 넘기이다. 그들의 서사적 정체성은 언제나 이동과 접촉에 따른 횡단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근래 디아스포라 담론이 활발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가 영토와 국가, 민족이나 인종에 귀속되지 않고 그 바깥으로의 탈출지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⁴⁶⁾”이다. 창은 이러한 디아스포라로서 주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시간의 바깥에 기록되는 디아스포라 서사는 어디에서가

45) 김유석, 이승하, 앞의 책, 32면.

46) 최영석, 「차이와 공존하기」, 『대중서사연구』 23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7, 370~371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 길에 대한 것⁴⁷⁾이다. 그러므로 창은 디아스포라 주체로서 진정한 횡단을 지속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에 드러난 창 의 미래는 아직 가능성의 잠재태에 불과하다. 창은 환대했던 이들의 철회에 동의하는 소극적 주체로 횡단을 시작하고 있다. 창이 불온한 존재가 된 이후 주체적 횡단의 과정에서 아주 다른 만남들을 자신의 안에서 어떻게 종합하며 정체성을 형성해갈지 드러나 있지 않다.

수직과 수평을 모두 가로지르는 횡단을 위해서는 주체가 경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권력과의 대결이다. 창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애디슨은 창과 캐더린의 결합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캐더린의 어머니는 창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 캐더린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크레인 은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창을 초대하지 않으며, 리틀도요는 아시안의 게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창은 무엇보다도 횡단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신을 구속하는 것과 대결하는 불온을 행해야 한다⁴⁸⁾. 불온이 힘을 발휘하여 자신을 지시하는 언어가 되면 그 힘이 현재적 시점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⁴⁹⁾. 변화된 디아스포라들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집단이 될 때 사회 혁신의 힘이 발현된다. 이는 최근의 디아스포라 개념이 “더 이상 착취의 서사가 아니라 통합과 해방의 근원에 관한 것”⁵⁰⁾인 이유와 통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에서 창이 디아스포라 주체로서 횡단하는 과정이 작가에게 이어져 지속될 때 산포된 한민족의 서사적 정체성으로서 현재적 의의가 커질 것이다.

47) 이진경은 양자를 하나로 동일화하는 유비, 공통기반을 통해 상이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섭과 횡단을 구별한 바 있다. 횡단은 기존 코드에 속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 이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여 주어진 경계 체계를 가로지르고 변환시킨다. 아주 다른 기원과 의미를 갖는 개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할 수 있어야 연결하고 분리하며 넘나들 수 있다. 이진경, 앞의 책, 37~147면.

48) 손기태, 앞의 책, 222~234면.

49) 임유경, 앞의 논문, 2015, 5면.

50) 케빈 케니, 앞의 책, 174~182면.

V. 결론

특정 사회·문화 조건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주체화를 꾀한다. 『외국인 학생』의 창은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이방인 의식을 작동하고 불편함을 주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 불온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이는 리틀도쿄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진 경험과 외국인으로서 위협을 감수한 욕망 수행의 결과이다.

환대받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불온한 이방인으로서 갖는 힘은 다원성과 주체를 생성한다. 욕망 수행의 결과로 환대를 철회당하고 벌을 받는 창은 스웨니에 이전에 없던 존재가 되어 불안과 다원성을 생성한다. 불온성은 경계를 넘음과 더불어 자신의 변화를 가동시킨다. 스웨니 사람들에게 창은 불편한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은 경계에서 장소화를 이루며 안전함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창이 캐더린과 상상했던 공간은 캐더린의 아버지가 말년을 보낸 집으로 구체화된다. 캐더린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아버지의 오두막집이 둘의 정주 공간으로 마련된 것은 우정의 의미를 보여준다. 가파른 해협의 오두막은 기둥 한 쌍이 물에 잠겨있어 마치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방인으로서 창외의 모습과도 같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커다란 십자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스웨니에 반해, 오두막은 창이 건너온 걸프만을 향해 활짝 열려있다. 그 공간은 주위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다. 작가는 이 공간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불가능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공간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⁵¹⁾”고 표현하였다. 창외의 주체적 횡단을 희망적으로 그린 것이다.

『외국인 학생』에서 수잔 최는 아버지의 전쟁이산 이유를 설명하고 디아스포라로서 수행한 주체성을 보여준다. 창외 불온한 이방인을 넘어 주체로서

51) Choi, Susan, 앞의 책, 하, 224면.

횡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를 생성해야 한다. 새로운 만남에서 자신까지 변환되는 분리와 연결, 자신의 장소를 채색하는 수행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의 혼종성이 수행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서사적 정체성 역시 주체적 횡단 중이다⁵²⁾. 이 수행이 창의 불온성을 확대하여 경계의 역사가 될 때 한민족 문학이 갖는 보편성과 고유성의 접경에 기입될 것이다.

52) 세 번째 소설인 『요주의 인물(A Person of Interest)』은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2018년에 작가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그것이 민족과 문화적 정체성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다루는 내용의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https://english.yale.edu/people/full-part-time-lecturers/susan-choi>. 2019. 6. 10. 검색)

참 고 문 헌

1. 자료

Choi, Susan, *The foreign student*, 최인자, 『외국인 학생』 상·하, 문학세계사, 1999.

2. 논저

권수경, 「환대와 글쓰기 - 레비나스, 데리다, 자베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 예술연구』 제53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5.

고부응, 나은지,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과 초민족적 공간」, 『미국소설』 15권 1호, 미국소설학회, 2008.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6.

김유석, 이승하,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집 29호,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은주, 「데리다와 공동체 없는 정치: 갈등과 고독을 보존하는 우애와 환대의 윤리」, 『철학연구』 122, 철학연구회, 2018.

김정현, 「배제의 정체성을 넘어서 - 열린 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모색으로서 서사적 정체성 연구-」, 『철학논총』 61집 3권, 새한철학회, 201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나은지, 「수잔 최(Susan Choi)의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의 두 주인공의 정체성 모색과정 연구: 연대를 통한 초민족적/다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6.

류보선, 「다언어공동체와 연인들의 공동체」, 『현대소설연구』 4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류선모, 『미국 소수민족문학 연구』, 신아사, 2001.

맹정현, 「불안과 불안의 운명」, 『문학과 사회』 22집, 문학과 지성사, 2009.

박선양, 「재미한인소설연구-1.5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14.

- 서울사회과학연구회 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푸른숲, 1997.
- 신지영, 「틀르즈에게 주체화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82호, 한국동서철학회, 2016.
- 이일환, 「재미한국계작가연구」(2), 『어문학논총』 22, 어문학연구소, 2003.
-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4.
- , 「개념으로서의 ‘불온」, 『개념과 소통』 제15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5.
- , 「방법으로서 불온-한국 문학과 역사를 읽는 하나의 시각」, 『한국현대문학회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 장사선, 「재미한인소설에 나타난 폭거와 응전」, 『한국현대학연구』 18, 한국현대문학회, 2005.
- 정병욱 외, 「‘불온’한 자들의 삶,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저작 비평: 정병욱 저, 식민지 불온열전」, 『역사문제연구』 제31호, 역사비평사, 2013.
- 정은경, 『디아스포라문학』, 이룸, 2007.
- 최영석, 「차이와 공존하기」, 『대중서사연구』 23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7.
- 최진석, 문화, 정정훈, 이진경, 손기태, 『불온한 인문학』, 휴머니스트, 2011.
- 최협, 『다민족사회, 소수민족, 코리안 아메리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 황은덕, 「디아스포라와 문화번역: 수잔 최의 외국인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20권 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3.
- 황정아, 『개념비평의 인문학』, 창비, 2015.
- 허윤, 「한국의 번역과 한국계 문학에 대한 시론-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6.
- Cronin, Michael, 김용규, 황혜령 옮김, 『번역과 정체성』, 동인, 2010
- Kenny, Kevin, Diaspora, 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서울: 엘피, 2016.
- Jodi Kim, "I'm Not Here, If This Doesn't Happen": The Korean War and Cold War Epistemologies in Susan Choi, CrossRef /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008. pp. 279~302.

Michelle Black Ph. D. “America and the divided country: Kore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the Korean War”,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5.

<https://english.yale.edu/people/full-part-time-lecturers/susan-choi>(검색일: 2019. 6.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4406252>.(검색일: 2019. 5. 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24010736301090020>(검색일: 2019. 5.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검색일: 2019. 5. 10.)

<https://www.amazon.com/Foreign-Student-Novel-Susan-Choi>(검색일: 2019. 5. 10.)

<http://www.okf.or.kr>(검색일: 2019. 5. 10.)

【Abstracts】

Disquieting Diaspora, to Became the Crossing Subject
– Focused on Susan Choi's “The Foreign Student”

Park, Seonyang

Chang, left homeland after he suffered from the anxiety of existence during Korean War. But he couldn't escape the repeated situations, unless he achieves the subjectivation, which should be beyond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making him anxious.

He had to secure his own space, which was absent, through speaking out the memories of homeland, andspace by way of the friendship. Chang have become liberty existence at the in-between and therefore succeeded in his spatialization. Afterwards the disquieting potentiality will continue according as how Chang colours his space.

Key words : Diaspora, Stranger, Subjectivation, Disquietude, Crossing, The Foreign Student , Susan Choi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